

# CONTENTS

2023년 뿌리의집 설립 20주년  
20th Anniversary of KoRoot



인사말/ Peter Moeller	02
뿌리의집 20년 성과와 남은 과제들/ 김도현	04
뿌리의집 20년 약사	11
활동 보고/ 2022~2023	16
재정 보고/2022~2023	20
후원해주신 분들/후원 안내	30

---

Opening/ Peter Moeller	02
The Achievements of 'KoRoot' Over 20 Years and Remaining Tasks/Do Hyun Kim	04
Brief History of 'KoRoot'	11
Activities Report/ 2022~2023	16
Financial Report/ 2022~2023	20
Doners/ Donation Guide	30

## 인사말

저는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피터 뮐러라고 합니다.

작년에 김 목사님께서 은퇴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뿌리의집의 리더십을 맡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0년 넘게 입양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한국에서 입양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분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큰 짐을 지는 것이기에 고민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겸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뿌리의집의 중요한 일을 이어가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입양 분야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뿌리의집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입양인들의 마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한국에서의 국제 입양에 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 전 세계에서 입양 문제를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유엔 인권 기구에서 국제 입양을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은 한국이 국제 입양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한 덕분입니다. 세계 최대 입양아동 공여국이 입양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찾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살고 있는 입양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입양 이슈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자신의 입양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입양 배경 정보와 한국 내 친가족을 찾고자 하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와 친가족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입양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중복 파일에서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새로운 입양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입양기관이 입양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가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과연 그렇게 전달된 정보가 모든 정보(all information)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실한 정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입양인의 자기 정

## Opening

My name is Peter Moller and I was adopted from Korea to Denmark.

Last year Pastor Kim told me that he wished to retire, and he asked me if I wanted to take over the leadership of KoRoot. I had to think about that, because it was big shoes to fill after a man who for more than 20 years have desiccated his life to adoptees and have fought for the rights of adoptees in Korea. It is therefore with great humility and respect that I have said yes to becoming part of the continuation of KoRoot's important work.

In the last few years, many things have happened in the field of adoption. KoRoots Guesthouse closed last year after being a central part of the consciousness of us adoptees.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decided in 2022 to conduct an investigation into international adoption from Korea. Around the world in i.a. Denmark, Sweden, Norway, Belgium, the Netherlands, France and Switzerland have put adoption on the agenda. Since 2022, UN human rights bodies have had international adoptions on the agenda. This is not least due to Korea's decision to investigate international adoptions. It is a positive paradox that the world's largest donor country of the adopted child is now leading the world in finding the truth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in adoption. This has resulted in a rarely seen interest among adoptees in Korea and in adoptions. An interest that is also about finding the truth behind own adoptions and searching for background information and Korean family in Korea. Access to own information and birth family is still the adoptees' biggest challenge. It is not because the information does not exist, but it is because the NCRC and adoption agencies will not help and find the true documents from the secret and closed duplicate files that we know exist.

In 2023, a new adoption law was adopted. It obliges the adoption agencies to transfer all information about the adoptees to the Korean state. This is very positive, but can we be sure that it is all information? Can we be sure that this is the true



Peter Moeller  
Co-Representative



보에 대한 접근 권리는 현재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 기관에 의해 방해 받고 있는 인권 문제입니다. 입양인들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입양될 당시 차별당하고 있었던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우리에 대한 인권 침해는 우리가 입양될 당시에만 있었던 일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권 침해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징후가 많 습니다.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친부모에 대 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권 침해를 매일같이 겪 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해외입양인들에게 매 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뿌리의집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양인들이 나 이가 드는 것처럼 한국의 친가족들도 점점 더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입양인들과 함께 한국에 입양인 ‘대사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뿌리의집 은 입양인들의 ‘대사관’이 될 것입니다. 입양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우리의 진정한 뿌리와 기원을 찾고 발견하는 데 있어 그들의 등대이자 닻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거 나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을 위해 뿌리의집이 함 께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의미로 입양인들의 출신 국 가에도 뿌리의집이 존재할 것입니다. 뿌리의집은 국 제적인 환경의 중심이라는 장점을 살려 입양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다리를 놓아야 하며, 향후 입양인 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뿌리의집 ‘대사관’을 설립하 여 입양인들과 한국, 한국 입양인들을 더 가깝게 연 결하고 유대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작업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nformation?

The adoptees’ right to their own information is a human right that is currently being hindered by the NCRC and the adoption agencies. Not only that the adoptees’ human rights were violated, as we ourselves were Boer Koreans. The practice of the NCRC and the adoption agencies indicates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not something that took place when we adopted Korean children. There are many indications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into the present and will continue into the future if nothing is done.

Human rights are violated every single day in the NCRC and in the Korean adoption agencies, when adoptees are denied access to their own information and denie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biological parentage. It happens every day in Korea to international adoptees from Korea.

KoRoot and I decided to do something about this work. Time is running out. As we adoptees grow older, so do our biological families in Korea. KoRoot, together with adoptees from all over the world, has decided to create the adoptees’ “embassy” in Korea. In the future, KoRoot will also be the “embassy” of the adoptees. It will be an open and free place where adoptees can get help, and will be their beacon and anchor point in their search and discovery of our true roots and origin. KoRoot will be there for the adoptees that are either living or visiting Korea. As something new, KoRoot will also be present in the countries where the adoptees come from. KoRoot must take advantage of being the center of an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build bridges to the countries where the adoptees live, and KoRoot will in the future establish KoRoot “embassies” in the countries where the adoptees live and in this way strengthen the bands and bring the adopted closer to Korea and Korea closer to the adopted.

Here at the end, I just want to say that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future work.



## 뿌리의집 20년 회고와 남은 과제들

뿌리의집은 2023년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핵심사업인 해외입양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접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인왕산 발치 양지 바른 곳에 차분하게 앉은 아름다운 가옥에서 출발했습니다. 모국을 찾는 입양인들의 안식처였습니다. 20년 전 김길자 여사 가족이 모국 방문하는 해외입양인들을 환대하는 마음을 담아 무상임대로 배려해 준 공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사님의 가족이 이 공간을 다시 사용해야 할 형편이라 공간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에 후원인 몇몇 분들이 나서서 후원 행사를 열었고, 부암동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했지만, 나머지 사업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이란, 해외입양인들의 모국 방문과 가족 찾기에 대한 조력, 해외입양인 인권 옹호 사업과 관련 법제 개혁 활동, 연구 사업과 출판 사업 등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단으로 뿌리의집은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바와 같은 사업들을 어려운 중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국내적 정황이 이야기하는 도전들

하나는 국내적 정황입니다. 뿌리의집이 사업을 펼쳤던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해외입양에 관한 실천과 관점들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뿌리의집은 그 변화에 관여해온 당사자들과 동행하며 조력자로서 그 변화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006년 제1회 입양의 날에 즈음하여, 원가정보호의 정책 수립과 실천이 입양장려정책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선적이라는 담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담론의 틀 안에서, 귀환입양인들과 원가족 및 미혼모 단체들과 연대하여, 2011년 입양특례

## KoRoot's 20-year retrospective and outlook

In 2023, KoRoot underwent a decisive change: we closed our core business, a guesthouse for international adoptees. The guesthouse started as a beautiful house sitting calmly in a sunny spot at the foot of Mount Inwang, a haven for adoptees visiting their home country. Twenty years ago, Mrs. Kim Gilja's family generously rented the space for free to show hospitality to international adoptees visiting their home country. As the years passed and her family needs to use this space again, apparently we have to move out. Several supporters stepped forward to sponsor the event, and we were able to set up a small office in Buam-dong. The guesthouse business has been temporarily suspended, but the rest of the business is still going on. The rest of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include helping overseas adoptees visit their home countries and find their families, advocating for the human rights of overseas adoptees and reforming laws, and conducting research and publishing.

With the closure of the guesthouse, Roots House is facing a crisis of identity and sustainability. Nevertheless, we have decided to continue these businesses despite the challenges, for two reasons.

### Challenges posed by the domestic context

One is the domestic context. Over the past 20 years of our work, there have been tremendous changes in Korean society's practices and perspectives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we have played a role in driving these changes by accompanying and facilitating those who have been involved and suffered.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National Adoption Day in 2006, we raised the discourse that the policy formulation and practice of cost protection for the original families is much more important and prioritized than adoption promotion polic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discourse, in solidarity with return adoptees, birth families, and single mothers' organizations, we led to the revision of the entire



김도현 목사  
공동대표

법 전부 개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입양기관과 입양부모 중심으로 설계·실천되고 있었던 법을 아동과 모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가정법원의 입양판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성 개입의 핵심적 단초들을 열어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입양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들인 아동의 인수, 아동보호, 아동 보고서 작성, 입양가정 조사와 결연, 사후 관리 등은 여전히 입양기관들의 손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입양기관들의 이익창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기에, 바로 거기에서 입양아동들의 인권이 훼손되는 비극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내어진 현수의 죽음(2014), 울산의 입양아동 사랑이의 죽음(2015), 대구의 입양아동 은비의 죽음(2016), 양천구의 입양아동 정인이의 죽음(2019)이 사슬처럼 이어졌습니다. 뿌리의집과 연대단체들은 통절하고 시린 가슴으로 애도와 추모를 거듭했고, 은비의 죽음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진상조사 보고회에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을 제안하고 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정인이의 죽음에 기대어, 2023년 6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더불어, 2010년부터 뿌리의집이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연대단체들과 함께 추진해온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지난 해 6월 ‘출생통보제’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역사의 진보는 언제나 백래시(backlash)의 돌부리에 걸리기 마련인가 봅니다. 뿌리의집은 이제 또 다른 거대한 장벽과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이 오는 7월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11년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은 ‘베이비박스’의 사회적 출현과 정당성을 옹호하는 빌미로 오용되었습니다. 2023년 출생통보제 제정은 ‘보호출산제’의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나 할까요. 출산이 위기로 간주될 만한 사태들에 대해서 국가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아동과 모성 둘 다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아동과 모성 둘 다를 패배자로 내모는 법입니다.

Adoption Special Law in 2011. The law, which had been designed and practiced by adoption agencies and adoptive parents, was revised to uphold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mothers, and the adoption settlement map of the family court was introduced. In short, it was a key step in public involvement.

However, even after that, important procedures in adoption practice, such as child acquisition, placement of child for their own facilities and foster care families, writing child adoptability report, adoptability check and matching, and aftercare, remained in the hands of adoption agencies. As these procedures were closely linked to the profit-making of adoption agencies, the tragedy of the human rights of adopted children continued. The death of Hyunsoo, who was sent to the United States for adoption (2014), the death of Sarangi, an adopted child from Ulsan (2015), the death of Eunbi, an adopted child from Daegu (2016), and the death of Jung In, an adopted child from Yangcheon-gu (2019), followed like a chain. KoRoot and solidarity organizations mourned with heartbreak, and held a truth investigation into Eunbi’s death. The truth investigation committee proposed a revision of the Adoption Special Act to prevent such a situation from happening again, and continued to work on it. In June 2023, the entire Adoption Special Act was revised in response to Jung In’s death. In addition to the revision of the Adoption Special Act,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which KoRoot has been pushing for since 2010 with solidarity organizations, was enacted in June last year under the name of “the Birth Notification Act”, although it is regarded as ‘a half-baked law’.

It seems that progress in history is often met with a backlash. The KoRoot is now struggling with another huge barrier: a new law called “the Safe Birth Law” is set to come into effect this July. As “the Special Adoption Law” revised in 2011 has been misused to advocate for the social emergence and legitimization of ‘baby boxes’, the enactment of “the Birth Notification Act” of 2023 has also been used to justify the legitimacy of the “the Safe Birth Law”. It could be said that a kind of ballooning effect has occurred, although it is not the truth. The state or government should protect both the child and the mother by creating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situations where childbirth can be considered a crisis, but this law makes both the child and the mother the losers. It is nothing less than a system of legalized abuse and





아동을 분리하여 모성의 출산 이력을 지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법은 법적 장치를 통해 아동과 친생부모(원가족)의 분리를 정당화 해주고, 아동의 출생의 진실을 지워버리는 일종의 합법적 학대이자 인권침해 시스템에 다름 아닙니다. 나중에 아동이 부모를 찾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부모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동의 ‘출생의 진실을 알 기본적인 인권’을 부모 일방의 이익에 예속시킨 법제입니다. 뿌리의집은 아동과 친생가족이 빈곤이나 편견의 힘에 눌려 분리와 이별, 상실과 배제라는 삶의 비극적 길목으로 들어서는 일이 없는 사회에 대한 꿈 안에서, 이 법제의 폐기라는 과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차원의 의제들

다른 하나는 글로벌 차원의 의제들입니다. ‘국가 간 아동 입양(해외입양)’에 있어서 결정적 변화의 흐름이 세계적 지평에서 일렁이고 있습니다. 2004년 약 4만5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인류공동체의 ‘국가 간 입양 아동’의 숫자는 2022년에 이르러 2천5백여 명으로 급락했습니다. 18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해외입양도 2004년에 2,287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42명으로 줄었습니다. 16분의 1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 간의 아동 입양’은 급격한 퇴조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1만년을 넘나드는 인류 문명사에 ‘국가 간 아동입양’이 제도적 층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지극히 최근이라 할 수 있는 바, 1953년 6·25 전쟁이 끝날 무렵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안되고 시작된 이 ‘아동 양육 실험’은,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그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록 재난과 빈곤에 내어 몰린 저개발국가들의 아동들에 대한 ‘선의’에서 출발했어도, ‘아동의 대륙 간 이동 양육’은 온갖 예기치 못한 부수적 효과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동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입양기관들과 브로커들에 의해 해외입양은 점점 이익을 산출하는 산업이 되어갔습니다. 이들은 가정 해체의 아픔에 공감하고 해결책과 지원책을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separates the child from his or her biological parents (the original family) and erases the truth of the child’s birth, while at the same time legitimizing the separation of the child from his or her biological parents through legal devices. There is a provision that the child can be reunited with his or her parents later, bu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It is a legal system that subordinates a child’s “fundamental human right to know the truth of their birth” to the interests of parents. KoRoot is wrestling with the challenge of repealing this legislation, within the dream of a society where children and their birth families are not forced by poverty or prejudice to enter a tragic path of separation, loss and exclusion.

## Global agendas

The other is the global agenda: a decisive shift in intercountry adoption is brewing on the global horizon. From a peak of around 45,000 children in 2004,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s in the global community has plummeted to less than 2,500 by 2022 - a drop of one in 18. South Korea’s intercountry adoptions also dropped from 2,287 in 2004 to 142 in 2022. That’s a drop of one in 16. Intercountry adoption is decreasing massively. In the more than 10,000 years of human civilization, intercountry adoption has only lately emerged as an institutionalized practice, beginn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3 at the end of the Korean War. Conceived and initiated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child-rearing experiment” is now, more than 70 years later, showing its harmful.

Even if it started out with the best of intentions for children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although it could be regarded as a partial truth or often it could be hardly agreeable), pushed to the brink of disaster and poverty, the intercontinental move of children has been plagued by all sorts of unforeseen side effects. Sooner the intercountry adoption increasingly became a profit-making industry, driven by adoption agencies and brokers who realized that children were money. Instead of empathizing with the pain of family breakdown and seeking solutions and support, they saw it as an opportunity to make a profit. The “good intentions” evolved into a “shiny, beautiful image,” and adoption pushed the principle of original family protection farther away. It



모색하는 대신, 이를 이익 창출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선의’는 ‘빛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발전했고, 입양이 원가정보보호의 원칙을 멀리 밀어내었습니다. 출산 시 사산이라고 속이는 등 불법적인 아동의 획득과 아동인신매매가 감행되는 시장이 되었고, 용이한 입양을 위해서 아동의 신분을 세탁하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아동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정체성을 훼손했습니다. 심지어, 국가 간의 아동 입양은 종종 저개발 국가들의 국익 추구를 위한 외교 전략의 한 수단으로 실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당사자들인 한국 출신 해외입양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인들의 요청으로, 2022년 한국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는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스웨덴은 한국으로부터의 아동 입양을 중단했고, 과거사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덴마크는 해외입양을 전면중단했고, 국회에서는 반 년 넘게 해외입양에 대한 청문회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벨기에도 해외입양을 중단했습니다. 네덜란드 하원에서는 해외입양의 중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스리랑카의 아동인신매매와 불법입양을 규명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입양이 범죄적이었다고 판단을 내렸고,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의 입양을 중단했습니다. 유엔에서는 매년 ‘국가 간 아동 입양’에 있어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세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강제실종 특별보고관 및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5개 특별보고관 사무국이 결합하여 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평에서도 ‘국가 간 아동 입양’은 이제 더 이상 ‘선의로 가득한 빛나고 아름다운 무엇’이 아니라 는 점을 점점 인지해가고 있습니다.

## 뿌리의집의 과제와 응답

뿌리의집은 국내적 상황에서나 세계적 지평에서나 상기한 바의 변화의 흐름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동행하며 견인해오기까지 했습니다. 2006년부터 해외입양이 아동복리로 여겨지는 이면에, 아동학대

has become a marketplace for the illegal acquisition of children and child trafficking, including falsely claiming stillbirths at birth, laundering children’s identities to facilitate adoption, and creating orphan registries to undermine the human dignity and identity of adopted children. Intercountry adoption has even been practiced as a diplomatic strategy, often between the industrialized West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in pursuit of their national interests.

The voices of Korean adoptees who have been affected by this situation are becoming louder and louder. In 2022, South Kore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pened an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overseas adoptees. Sweden suspended child adoptions from South Korea and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its past. Denmark has suspended all intercountry adoptions, and parliament has been holding hearings on intercountry adoption for more than half a year. Norway and Belgium have also suspended intercountry adoptions. The Dutch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begun a debate on ending intercountry adoption, and lately Netherlands ended the practice of intercountry adoption. Switzerland has identified child trafficking and illegal adoptions in Sri Lanka. France determined that adoptions from Holt Children’s Welfare Society in South Korea were criminalized and suspended adoptions from Holt Children’s Welfare Society. The United Nations holds an annual sess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session is organized by a combinat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Secretariats of five Special Rapporteurs, including the Special Rapporteur on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Justice, Truth and Reconciliation. Even on the UN horizon, it is increasingly recognized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not be regarded at all as ‘something shiny and beautiful, full of good intentions’.

## Challenges and responses of KoRoot

KoRoot has accompanied and even driven many of the above changes in various ways, both domestically and on the global horizon. Since 2006, we have presented the discourse that international adoption is seen as child welfare and that there is a system of child abuse behind it. For nine years, starting in 2009, we celebrated Single Mother’s Day at the National Assembly,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답론을 제시했습니다. 2009년부터 9년 동안 국회에서 ‘싱글맘의 날’을 기념하면서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아동에 대해 입양을 말하기 전에 국가는 아동이 원가정의 품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부모의 신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상관없이 아동은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될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입양 진실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입양인의 정체성과 기록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출생의 진실을 담지 못한 기록과 고아호적의 문제를 사회적 논의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모 사업에 응모해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조사사업 보고서’를 제출했고, 202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본격적인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조사연구’ 사업의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외입양의 인권침해에 관한 답론은 세계적 지평에서는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답론은 더 발전해야 하고, 답론 발전의 결과로 입양인들의 인권회복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들의 사과와 입양기관들의 사과, 입양인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기구들의 설립과 배보상, 탁월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가족 재회에 대한 노력 시스템의 구축 등, 입양기록의 보존과 관리 체계의 마련 등등, 산적한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뿌리의집이 게스트하우스의 문을 닫은 후에도, 모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국 방문 중에 필요한 도움과 조언을 받기 위해서, 혹은 그 동안의 우정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혹은 가족 찾기에 관련된 도움을 요청하러 뿌리의집 사무국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국가 간 입양’은 국가와 대륙의 경계를 넘어 시도된, 인류공동체에게는 매우 낮은 아동양육의 방식입니다. 입양인들의 삶은 친생가족과의 강제 분리, 출생국가의 사회적 생태계로부터의 완전 분리, 낮은 입양가정과 입양국가에서의 성장노동 등 생존과 적응을 위한 분투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어렵사리 찾은 모국에서의 또 다른 배제와 차별, 나아가 가족 찾기의

hel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argued that children have the right to grow up in the arms of their birth families before the state speaks of adoption, and that children have the right to know and be raised by their parents, regardless of the social status of the parents or societal prejudice against their status. In 2020, we organiz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o commemorate Adoption Truth Day, raising the issue of “Adoptee Identity and Records,” bringing the issue of untruthful birth records and orphan registers to the table for public discussion. In 2021, we submitted a report on the project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of overseas adoptee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in 2022, we served as an advisory organization for the full-scale project to investigate human rights violations of overseas adoptees order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owever, the discourse on intercountry adoption still has the status of a newborn baby on the global horizon. This discourse needs to evolve, and as a result of this evolution, steps must be taken to restore the human rights of adoptees. We have a lot of work ahead of us: apologies from states and apologies from adoption agencies,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to heal the lives of adoptees and reparations, the creation of a system of excellence and professionalism to facilitate family reunion, and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adoption records by the state.

Even after KoRoot closed its guesthouse doors, we continue to have adoptees visiting their home countries. They cross the threshold of the office of KoRoot to get help and advice during their visits, to revitalize friendships, or to ask for assistance in finding their families. Intercountry adoption is a way of raising children that is very foreign to the human community, as it has been practiced across national and continental boundaries. The lives of adoptees have been marked by a struggle for survival and adaptation, including forced separation from their birth families, complete disconnection from the social ecosystem of their country of origin, and child growing labor in unfamiliar adoptive homes and countries of adoption. The experience of further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n the hard-fought-for home country,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encounter in the process of finding their families, often leave deep scars.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인권 훼손 경험은 그들에게 또 다른 깊은 상흔을 남기곤 합니다.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혁신되는 일은 주로 미래에 입양의 경로에 오를 아동들의 인권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보호하는 일에 관련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인식과 개정된 법들은 과거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서, 입양의 경로에 올랐던 사람들의 삶을 오늘 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성찰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 못 되었나를 아는 것만으로, 과거의 인식과 제도의 실천 안에서 입은 입양인들의 상처가 사라지거나 치유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새로운 인식에 이르거나 제도와 법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과거의 인식과 법제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과의 동행의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뿌리의집은 이 동행의 의무를 확대의 틀 안에서 수행하기 위해 오늘도 사무국의 문을 열고 진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적 정황이 야기하는 도전들과 글로벌 차원의 의제들에 대한 해결점들을 모색하고 올바르게 응답해나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뿌리의집은 앞의 인사말을 통해서 소개해 올린 피터 뢰러를 뿌리의집 새 리더십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 일하다가, 조만간 자리가 잡히면, 피터가 뿌리의집 대표로서 일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사회의 한 어른(부족한 점 많으나)으로서 모국을 찾아 오는 입양인들을 환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뿌리의집 역사를 저술하며, 일반 대중들과 해외입양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제한된 역할 만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피터 뢰러의 교육과 경험을 소개해 올립니다.

2022-현재: 덴마크 프레데릭스베르크시 음악위원회 위원  
2003-현재: START의 대표이사  
2012-2020: 민간 기관 Planeten 이사  
2008-2011: LIDL 덴마크 특별 컨설턴트  
2005-2008: Dansk Supermarked 특별 컨설턴트

Raising awareness and reforming institutions is often about bette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ho will come into care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new awareness and revised laws are like a mirror to the past, helping us to see and reflect on the lives of those who have been on the pathway to adoption through today's eyes. However, knowing what went wrong does not in any way erase or heals the wounds that adoptees have suffered in the past, both in terms of awareness and in the practice of the system. It is precisely at this point that those who have come to new perceptions or have participated in the creation of new institutions and laws are given the duty of accompanying those who have been wounded by past perceptions and institutions. KoRoot continues to open its doors today to fulfill this duty of accompaniment within the framework of hospitality.

Facing the challenges posed by domestic circumstances and seeking solutions to global issues is no easy task. In light of this,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e appointment of Peter Moeller as the new leader of KoRoot, as he wrote in his 'greetings' in the front pages of this annual report. For the time being, he will co-lead with me, and once things settle soon, Peter will take on the role of the sole representative of KoRoot. As an elder in Korean society (albeit with many shortcomings), I will continue to welcome adoptees returning to their motherland,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them, write the history of KoRoot, and share the stories of overseas adoption with the general public as a storyteller.

Here is an introduction to Peter Moeller's education and experience.

2022-present: Co-founder of Denmark-Korea Human Rights Group (DKRG)  
2003-present: CEO of START company  
2008-2011: Special Consultant at LIDL Denmark  
2005-2008: Special Consultant at Dansk Supermarked  
2001-2015: Chairman of the Liberal Party Candidate Committee in Denmark  
1996-1999: Special Consultant at Copenhagen Court  
1994-1996: UN envoy appointed by the Minister



2001-2015: 덴마크 자유당 후보위원회 의장  
2000-2015: 덴마크 자유당 캠페인 총괄  
1999-2005: FAJABEFA 이사  
1997-2015: 덴마크 자유당 제5 선거구 위원장  
1996-1999: 코펜하겐시 법원 특별 컨설턴트  
1994-1996: 장관이 지명한 유엔파견 대표  
1994-1996: 장관이 지명한 덴마크 국가위원회 위  
원  
1997-2000: 코펜하겐 대학교, 법학  
1994-1997: 오르후스 대학교, 법학  
1993-1995: 덴마크 자유당 선출 정치인  
1990-1993: Hobro 고등학교  
기타활동:  
2022- : 덴마크 한국인권단체(DKRG) 공동 창립자  
1987- : 덴마크 자유당 당원

1994-1996: Member of the National Commission appointed  
by the Minister  
1997-2000: Law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1994-1997: Law studies at Aarhus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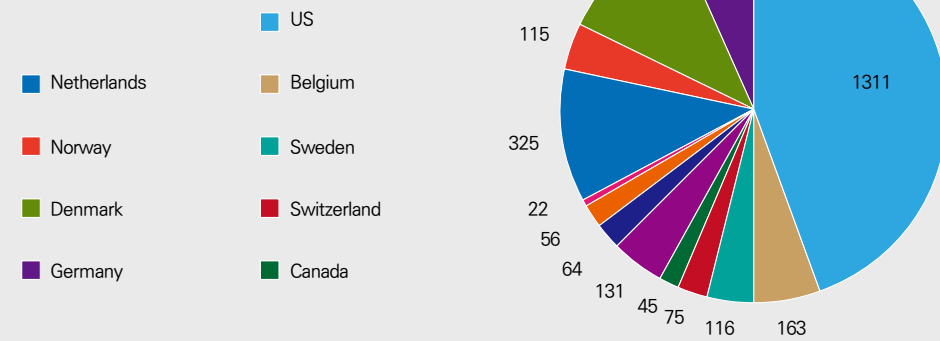
# 뿌리의집 역사(2002년 2월~2024년 2월) The Brief History of KoRoot(February 2002 - February 2024)

## I. 숙박 사업 통계(2003년 7월~2023년 6월)

Year	Total nights for accommodation service	Year	Total nights for accommodation service	Year	Total nights for accommodation service
2003	395	2010	3928	2017	2451
2004	1789	2011	3731	2018	1880
2005	2965	2012	2865	2019	1351
2006	3544	2013	2776	2020	392
2007	4145	2014	2893	2021	377
2008	4587	2015	2417	2022	1110
2009	4123	2016	2668	2023	640

2003년~2023년 총계 50,377 숙박일 서비스 제공 / Total nights for accommodation service for 20 years: 50,377

Number of people stayed by Nationality  
(2011-2023 except 2014, 2018)



## II. 연혁

### 2002

2월 - 해외입양인인센터 개소를 위한 시민단체 창립총회[공동대표: 김길자(경인여자대학 설립자), 서경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

### 2003

4월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울시국제협력과 제495호)  
7월 - 해외입양인게스트하우스 뿌리의집 개원/개원식  
9월 - 입양인과 함께 하는 추석잔치[2003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추석 당일에 개최/ 코로나로 2021년엔 개최하지 못함]

## II. History

### 2002

**February** - Founding meeting of a civic organization to open a center for overseas adoptees [co-presidents: Kim Gil-ja (founder of Kyungin Women's University) and Seo Kyung-seok (executive chairman of the Korea Sharing Movement)].w

### 2003

**April** - Registered as a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 (Seoul City Govern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No. 495)

**July** - Opening the Overseas Adoptee Guesthouse KoRoot/ Opening Celebration Event

**September** - Chuseok Feast with Adoptees [Held on Chuseok Day every year from 2003 to 2023 (not held in 2021 due to COVID-19)]



## 2004

2월 - 김도현 목사/공정애 사모 뿌리의집 운영책임자로 부임

## 2005

2월 - 입양인과 함께 하는 설날잔치[2005부터 매년 설날 당일에 개최/ 코로나로 2021, 2022년엔 개최하지 못함]

4월 - 귀환입양인 직업교육 프로그램 “흙별날 돌아와 살기 배움터” 운영(2005년-2008년)

9월 - 친생모에 관한 다큐멘터리 기획 및 제작 시작(주제: 친생모의 목소리/ 감독 위촉: 태미 추)

11월 - 추수감사절 디너 파티[2005~2011년까지 7년 동안 매년 시행]

## 2006

5월 - 제1회 입양의 날 기념 공개토론회(주제: 가부장제 해외입양 다시 생각한다/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

## 2007

5월 - 귀환입양인과 참사모(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부모 자조모임)의 대화모임 및 가든파티

## 2008

5월 - 입양인 시인 헤릭(Lee Herrick) 영시낭독회(Fresno City College 교수, California주 계관시인)

6월 - 입양인 지혜 만델슨(Ji-Hye Mandelson) 추모식(예루살렘의 임상 약물 투여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사망)

7월 - 개원5주년 기념식 및 토비야스 휘비네트 박사의 “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Comforting an orphaned nation의 한국어판-출판축하회

8월 - 미국 입양인 시인 제니퍼 쿼 돕스(Jennifer Kwon Dobbs) 영시낭독회(미네소타주 세인트올라프대학 교수)

## 2009

3월 - 스웨덴 입양인 수잔 브링크(Susan Brink) 추모식

5월 - 독일 입양인 포토그래퍼 김 스페를링(Kim

## 2004

**February** - Rev. Do Hyun Kim and his wife Mrs. Kong Jung Ae hold office for the operation of KoRoot.

## 2005

**February** - Lunar New Year Feast with Adoptees [Held annually on Lunar New Year's Day since 2005 (not available in 2021 and 2022 due to COVID-19)]

**April** - Operated “흙별날 Learning Center”, a vocational training program for returning adoptees (2005-2008)

**September** - Began planning and production of a documentary about birth mothers. (The film was named Resilience upon completion. / Director: Tammy Chu)

**November** - Thanksgiving Dinner Party [implemented annually for 7 years from 2005-2011]

## 2006

**May** - Public Discussion Forum on the 1st Adoption Day (Topic: Rethinking Overseas Adoption / Venu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earning Center)

## 2007

**May** - A dialogue meeting and garden party with returnee overseas adoptees and 참사모 (Self-help group of domestic adoptive parents from Holy Family Adoption Center)

## 2008

**May** - Poetry reading by American adoptee poet Lee Herrick (Professor of Fresno City College, the 10th California Poet Laureate)

**June** - Memorial service for adoptee Ji-Hye Mandelson. (died of leukemia at a clinical drug administration hospital in Jerusalem.)

**July** - 5th anniversary celebration and ceremony of the publication “해외입양과 한국민족주의”(translated version of “Comforting an orphaned nation” authored by Tobias Hubinette)

**August** - Poetry reading by Jennifer Kwon Dobbs, American adoptee poet (and professor at St. Olaf College in Minnesota)

## 2009

**March** - Memorial for Swedish adoptee Susan Brink

**May** - Photography and video art exhibition at Gyeongbokgung Station Museum, “The Gap between Separation and Return” (German adoptee photographer Kim Sperling with 2 video artists and 1 poet)

Sperling) 외 3인 사진전 및 비디오아트 전시회  
'이산과 귀환의 틈새'를 경복궁역 미술관에서 개최

## 2010

5월 - 북촌 선재 아트센터에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시민 사회 회의" 개최 및 다큐멘터리 필름 "회복의 길(Resilience)" 상영회(감독: Tammy Chu, 총괄 프로듀서: 김도현)

5월 - 국제 입양학자 데이비드 스몰린 박사(샘퍼드 대학교 컴벌랜드 법학교 교수) 초청 강연 "국제 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 아동 인신매매, 그리고 한국 입양 제도" 공동 주최 (여성정책연구원)

5월 - 뿌리의집과 연대단체들이 제안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이 최영희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안건으로 발의됨

## 2011

5월 - 제1회 싱글맘의 날 기념 행사 및 국제컨퍼런스 공동주최[2011년부터 2019년까지 9회차 기념 후 종결]

6월 -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이는 입양특례법 법제 변화의 분수령과 같은 개정.

## 2012

5월 -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편찬: 제인 정 트렌카 외 2인) 출판기념회

12월 - 제1회 연대의 날(Solidarity Day) 기념 만찬 [매년 열여온 추수감사절 디너 행사 승계함, 2012~2018년까지 매년 개최 후 종결]

## 2013

5월 - "인종간 입양의 사회학"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5월 - "원초적 상처", "입양 치유" 발간

7월 - 뿌리의집 창립 10주년 행사

## 2014

2월 - 미국 입양아동 현수(Hyunsu O'callaghan) 추모식. 보건복지부의 입양기관에 대한 감사를 이끌어 냄

## 2010

**May** - "The civil society conference to call for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doption Law" and the screening of the documentary film 'Resilience' (directed by Tammy Chu, executive producer Do Hyun Kim) held at Sunjae Art Center in Bukchon.

**May** - Co-hosted a guest lecture by international adoption scholar Dr. David Smolin(Prof. at Samford University Cumberland School of Law)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Child Trafficking, and the Korean Adoption System'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May** - The 'Special Adoption Law Amendment' proposed by KoRoot and solidarity organizations was introduced as a motion by Representative Choi Young-hee in the National Assembly

## 2011

**May** - Co-hosted the inaugural the 1st Single Moms Day celebration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celebrated 9 times from 2011 to 2019, then ended].

**June** -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the amendments to the Adoption Special Law. This could be considered as a milestone in the changes to the Special Adoption Law

## 2012

**May** -Publication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Outsiders within\_Writing on Transracial Adoption)'(Edited by Jane Jung Trenka with 2 others)

**December** - Inaugural the 1st Solidarity Day celebration dinner [succeeded the annual Thanksgiving dinner event, held annually from 2012-2018 and then discontinued].

## 2013

**May** - '인종 간의 사회학',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book for 'Outsiders within\_Writing on Transracial Adoption, was selected as an Outstanding Academic Book of the year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 Publication '원초적 상처'(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Primal Wounds") and '입양 치유'(the Korean translation of "Adoption Healing")

**July** - The Celebration for the 10th Anniversary of KoRoot

## 2014

**February** - Memorial service for Hyunsu O'callaghan, an adopted child in the U.S. Led an audit of adoption agencie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June** - Publication "구원과 밀매"(The Korean translation of "Child Catchers\_ Rescue, Trafficking, and the New Gospel of Adoption")

6월 - Kathryn Joyce의 책 "the Child Catchers"를 번역 "구원과 밀매" 발간

## 2015

5월 - "한국해외입양-초국가적 아동양육 실험과 분투하는 입양서사 50년" 발간

## 2016

8월 -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만남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입양의 정치학"

## 2017

5월 - 김도현 대표 미국 캘리포니아 UC Irvine 심포지엄 기조 발제 "The End of Korean International Adoption"

9월 - 입양인 정신심리상담 치유세미나(강사 Hilbrand Westra)

## 2018

2월 - 노르웨이 입양인 얀 소르코크 추모식

5월 - 휴먼라이브러리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개최

5월 - 해외입양인 모국 귀환 30주년 기념행사 "1988~2018: 30 Years of Korean Adoptees Return" 공동주최

## 2019

1월 - 국제아동인권단체 "Family for Every Child" 준회원 가입

5월 -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발간

12월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19 대한민국인권상' 공동수상(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공동 활동)

## 2020

5월 - 연대단체들과 공동으로 "입양 진실의 날" 선언문 발표(5월 11일)

6~11월 - 입양인들과의 대화 시리즈 강연 및 워크숍 개최: "한국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 정책 그리고 관행"

## 2015

**May** - Publication "한국해외입양\_초국가적 아동양육 실험과 분투하는 입양서사 50년" (Korean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_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 2016

**August** - Roundtable for adoptees and birth families: "The Politics of Adoption"

## 2017

**May** - Rev. Do-Hyun Kim, keynote presentation at the UC Irvine Symposium, "The End of Korean International Adoption", California, USA

**September** - Adoptee Psychotherapy Healing Seminar (Instructor: Hilbrand Westra)

## 2018

**February** - Co-hosted memorial service for Norwegian adoptee Jan Sorskog

**May** - Hosted a human Library "Reuniting Adoptees and Birth Families"

**May** - Co-hosted "1988-2018: 30 Years of Korean Adoptees Returning\_a 3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return of Korean adoptees to their home countries"

## 2019

**January** - Became an associat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hildren's rights organization "Family for Every Child"

**May** - Publication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Korean translation of "To Save the Children of Korea\_The Cold War Origi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uthored by Arissa H. Oh)

**December** - Co-recipient of the 2019 Korea Human Rights Award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or work with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Network)

## 2020

**May** - Declared May 11 as "Adoption Truth Day" and issued a proclam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adopted people in Seoul and allies (May 11)

**June-November** - Dialogue with Adoptees\_series of lectures and workshops: "Law, Policy, and Practice on Intercountry Adoption in Korea" together with Dr. Kyung Eun Lee

**September** - 1st "Adoption Truth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Defining Adoption: Records and Identity," sponsored by Family for Every Child



- 9월 - 제1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입양의 정의를 말하다: 기록과 정체성” 주최/주관
- 11월 - “인종주의의 빛을 넘어서: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 발간

## 2021

- 6월 - 포켓미닛 특별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6월 26일)
- 11월 - 해외입양인인권침해 조사사업 보고서 제출-국가인권위원회
- 11월 - The Global Orphan Adoption System: South Korea's Impact on Its Origin and Development 출판 및 출간기념 북토크(저자 이경은 박사, 통인역사책방에서).

## 2022

- 1월 - 국가 간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 발간(1/31)
- 5월 - 포스트 코로나 가든파티(5/14)
- 12월 - 뿌리의집 새 공간 마련을 위한 후원야밤 행사 (12월 30일 달개비에서)

## 2023

- 1월 - 뿌리의집 새 공간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 자선전시회 유명애 기증전(1/4 - 1/10)
- 2월 -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2/22)
- 6월 -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 7월 - 20주년 기념식 및 입양인 예술가 작품 전시회 (7/7 - 7/21)
- 7월 -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연 구 포럼(7/17)
- 8월 - 청운동게스트하우스 사업 종결 및 뿌리의집 사무국 부암동으로 이전 개소
- 8월 - 김길자 이사장 사임, 노혜련 이사장 취임

**November** - Publication “인종주의를 넘어서\_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The Koran translation of the book “Mixed Korean: Our Stories, edited by Katherine Kim with 3 others)

## 2021

**June** - Special screening of “Forget Me Not” and talk with the director

**November** - Submission of the Report ‘The Investigation Report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Overseas Adoptee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ovember** - Publication and Book Talk on “The Global Orphan Adoption System: South Korea's Impact on Its Origin and Development (author: Dr. Kyung Eun Lee)

## 2022

**January** - Publication “국가 간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uthored by /Nigel Cantwell)

**May** - Post-Covid19 Garden Party

**December** - A fundraising event to support the preparation of a new space for KoRoot (on the 30th, at Dalgaebi)

## 2023

**January** - Beautiful Donation Charity Exhibi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Space for KoRoot: Art Donation by Yoo Myung-ae, watercolor artist

**February** - Co-hosted a parliamentary debate to explor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overseas adoptees and ways to ensure their human rights

**June** -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International Adoption act”, “Birth Notification System act” passed as a result of lobbying together with solidarity organizations

**July** - 20th Anniversary Celebration and Adoptee Artwork Exhibit

**July** - Hosting the Research Forum for union between overseas adoptees and birth families

**August** - Closing the Cheongdong Guesthouse and KoRoot Secretariat relocated to Buam-dong

**August** - Chairman Kim Gil-ja resigns, and Chairman Noh Hye-ryun takes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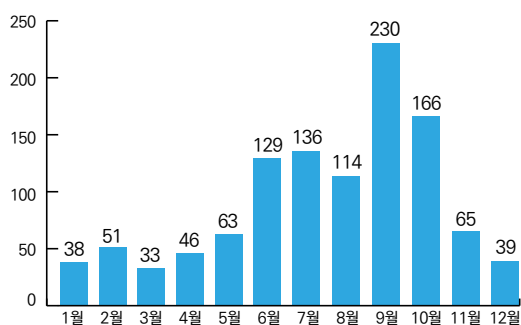
## 활동 보고

### 2022년도 활동(Activity in 2022)

#### I. 쉼터 사업

##### 1) 2022년의 게스트하우스\_서서히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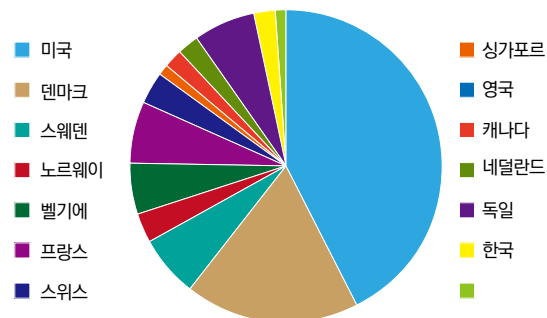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거의 종료되어 뿌리의집 게스트하우스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2020년~2021년 연간 숙박자 수 20명 이하, 연평균 숙박일수 388일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총 숙박자 수 94명, 숙박일수 1,100일을 기록해 서서히 예년의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숙박자 수 증가를 넘어 해외입양인의 공동체 회복을 뜻합니다. 지난 5월 입국자 의무격리 면제 후부터는 숙박자 수가 급증하여 특히 추석이 있는 9월 숙박일수가 예년 수준보다도 많은 230일에 이르러, 그간 입양인들이 모국방문은 물론 입양인들 간 연결과 유대의 기회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 I. Shelter Business

##### 1) The guesthouse business is gradually normalizing as it recovers from the impact of COVID-19.

The year 2022 marked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eturn of KoRoot Guesthouse to normal operations. Compared to 2020-2021, when we had fewer than 20 guests per year and 388 nights per year, this year we had 94 guests and 1,100 nights, showing that we are on our way to returning to our pre-COVID levels. The bustle in guesthouses is more than jus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overnight stays, it's a sign of the recovery of visiting populations of overseas adoptees to their motherland. After the exemption from mandatory quarantine for arrivals in May, the number of overnight stays surged, reaching 230 nights in September, which is above normal levels, indicating that adoptees have been waiting for the opportunity to travel back to Korea.



##### 2) 모국생활지원

2022년, 게스트하우스가 정상 운영되면서 입양인의 모국생활 지원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2022년에는 총 56명의 입양인에게 139건에 대하여 국적

##### 2) Supporting Adoptees in Their Motherland

In 2022, the guesthouse became fully operational and activities to support adoptees in their home countries became more active. In 2022, we provided 139 cases of nationality restoration assistance



회복 지원, 법률 지원,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병원 진료 조력 등의 생활 지원과 가족찾기 상담 및 통·번역 지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위기지원 활동으로는 코로나 확진자 2명에 대해 격리 조치를 조력했습니다.

to a total of 56 adoptees, including legal assistance, life support such as cell phone activation, account opening, and hospital visits, family search counseling, and translation support. In terms of crisis support activities, we assisted two people who were confirmed to have COVID-19 with quarantine measures.

## II.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1) 포스트 코로나 가든 파티

뿌리의집은 2022년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다시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준 해외입양인들을 위해 5월 14일에 포스트 코로나 가든파티를 열었습니다. 크고 작은 파티를 개최해 환대와 우정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뿌리의집에서 흔한 일이었지만, 명절이나 연대의 날 등 특별한 날이 아닌 뿌리의 집 일상에서 축제를 즐기게 된 것은 3년만의 일입니다. 오랜만에 열린 가든파티에 해외입양인 51명이 참석해주었고, 뿌리의집 후원자들의 축하 인사와 작은 공연, 그리고 야외 바비큐 식사가 어우러진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 1) Post-COVID19 Garden Party

On May 14, KoRoot hosted a Post-COVID19 garden party. It was a party to celebrate and rejoice in the end of social distancing due to COVID-19. Throwing parties, large or small, to share hospitality and friendship has been a common occurrence at KoRoot, but for the past three years, we haven't been able to have any parties or get-togethers. Fifty-one adoptees attended. We rejoiced in the end of Covid-19, exchanged well wishes and enjoyed food and barbecue prepared by KoRoot staff and volunteers in the beautiful garden of KoRoot.

### 2) 추석 명절 행사

2021년은 뿌리의집 개원 이래 처음으로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없었던 해였습니다. 2년만에 열린 2022년 9월 10일 추석 명절 행사에는 입양인과 입양인의 가족, 지인을 포함해 총 55명이 참석하였고, 입양인 풍물패 메아리가 공연으로 행사를 빛내 주었습니다. 2022년 뿌리의집 추석 행사는 입양인들이 다시 명절을 기념하는 가운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이자,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흩어 놓을지라도 마침내 우리들은 서로 연결



### 2) Chuseok Holiday Event

2021 was the first year since the opening of KoRoot that we were unable to celebrate the Chuseok holiday. After two years, the Chuseok celebration on September 10, 2022, was attended by 55 people, including adoptees, their families, and friends. 메아리(Echo group/ adoptees group for a traditional dance and music form of Korean farmers) performed their dance and music. It was a time for adoptees to celebrate the holiday again and to ask for each other's well-being, affirming that even though the pandemic may have separated us,



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자리였습니다.

we are finally one connected community.

### III. 권리옹호

#### 1) 진실화해위원회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조사사업 조력

2022년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에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조사사업을 청원할 필요성을 논의하던 중, 덴마크 한국 입양인들로 구성된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이 주축이 되어 372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진



화위에 조사청원을 제출하였다. 이후, 뿌리의집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 입양인들의 조사 청원에 약간의 조력을 제공했고, DKRG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 III. Advocacy

#### 1) Assisting activities for adoptees petitions to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2022, while discussing the need to petiti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overseas adoptees with attorney Hwang Pil-gyu of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the Danish Korean Right Group(DKRG), a group of Danish Korean adoptees, led by Peter Moeller, submitted a petition to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ince then, KoRoot has provided some assistance to the Australian and Swedish adoptees in their petitions.

### IV. 연구 사업

#### 1) 해외입양 인권 의제화를 위한 포럼 공동주최

2) 2022년 2월 16일에는 뿌리의집,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주최하고, Family for Every Child 후원한 ‘해외입양의 인권 의제화를 위한 포럼’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2021년부터 뿌리의집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해외입양절차상의 인권침해 조사 프로젝트를 제안한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그 내용을 구성한 포럼이었습니다.



### IV. Research Project

#### 1) Co-hosted “Discussion forum proposes to put intercountry adoption on the human rights agenda”

On February 16, 2022, KoRoot,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Interest Law Center, Public Interest Human Rights Law Foundation, and Family for Every Child co-hosted a forum “Discussion forum proposes to put intercountry adoption on the human rights agenda” at the Franciscan Education Center. The forum was based on KoRoot’s paper “the Research Project Report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 which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21.

## V. 출판 사업

### 1) 『국가 간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 발간

원제: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

나이젤 캔트웰 지음 | 뿌리의집 옮김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감수

2022년 1월 31일 발행 | 216쪽 | 비매  
품

뿌리의집 출판사는 지난 2014년 나이젤  
캔트웰이 쓴 『국가 간 입양과 아동 최선  
의 이익』을 번역 출간했습니다. 유엔아  
동권리협약 초안 작업의 참여자 중 한 사람이기도  
했던 나이젤 캔트웰은 국제 아동 권리 분야의 전문  
가로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니세프 이  
노첸티연구소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장 중  
요한 원칙 중 하나인 ‘아동 최선의 이익’이 아동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자 권고의 형식으로 본 연  
구서를 출간했습니다.



## V. Publishing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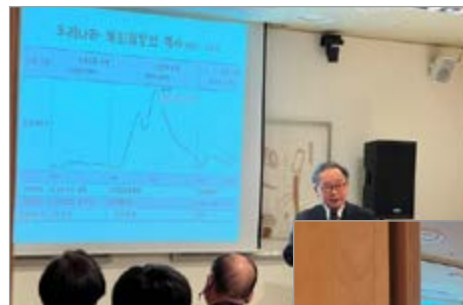
### 1) Publication “국가 간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Korean translation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

KoRoot published a translation of Nigel Cantwell’s  
book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Best  
Intercountry Interest of the Child’, authored by  
Nigel Cantwell, who was one of the participants  
in the drafting of the UNCRC,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expert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hildren’s rights.

## VIII. 모금 사업

### 1) 후원의 밤

2022년 12월 30일, 달개비에서 개최. 윤장순 여  
사의 소장품 기부, 함순효 이사의 장소와 음식 제  
공, 한혜정 감독님의 재능 기부에 기초해서 이지  
운 이사가 총괄 기획해주셨다. 이 날 기부금 총액은  
52,020,000원이었다.



## VIII. Fundraising

### 1) Fundraiser Night

The event, organized by Director Ji Yoon Lee(이지운) and held  
on December 30, 2022, at Dalgaebi, was based on the generous  
contributions of several individuals. Mrs. Jang Soon Yoon(윤장순)  
donated her collection, Director Soon Hyo Ham(함순효) provided  
the venue and food, and PD Hye Jung Han(한혜정) contributed her  
talents. The total amount of donations collected on this day was  
KRW 52,020,000.



## 활동 보고

### 2023년도 활동(Activity in 2023)

#### I. 뿌리의집 20주년 기념 행사 및 이사

#### I. 20th Anniversary Celebration and Moving

##### 1) 뿌리의집 20주년 기념식

##### 1) 20th Anniversary of KoRoot

2023년 7월 7일은 뿌리의집 역사의 분수령이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2003년 7월 7일에 문을 연, 청운동 게스트하우스의 문을 닫는 해였다. 김길자 이사장과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민간의 지도자들이 모국 방문하는 해외입양인들을 위한 환대의 집을 연지 20년. 거의 4,000명에 육박하는 입양인들이 이 곳에 와서 머물렀고, 제공한 숙박일수는 5만 박을 웃돌았다. 해외입양의 아픈 역사의 흐름 안에서 모국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이였다.



20년이 흐르고 이 게스트하우스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제 그 따스함 갖는 손을 거두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어서, 2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분명 지난 날의 수고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고요한 슬픔과 통증이 스며드는 시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 날은 청운동의 아름다운 사가를 모국 방문하는 입양인들을 위해 20년 동안 내어 주신 김길자 이사장님의 아름다운 헌신에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후원자들과 자원활동가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입양연대회의에서 감사패를 가지고 와서 이 날의 감사와 기쁨을 더해 주었다.

##### 2) 뿌리의집 20주년 기념 해외입양인 예술 전시회

뿌리의집은 해외입양인들의 집이었다. 20년을 기념하기 위해 입양인예술가 기무라 별에게 해외입양인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회의 기획을 부탁했고, 7월 7

July 7, 2023 marked a watershed in the 20-years' history of KoRoot. It marks the 20th anniversary and the closing of the guesthouse, which opened on July 7, 2003. It has been 20 years since Dr. Kim Gil-ja, Rev. Seo Kyung-seok, the civilian leaders opened a house of hospitality for overseas adoptees visiting their home country.

Almost 4,000 adoptees have stayed here, and the number of accommodation nights provided has reached over 50,000 nights. It was a warm hand from the home country in the midst of the painful history of international adoption. To close the guesthouse's doors after 20 years is almost like to withdraw that warm hand, so the

20th anniversary celebration was certainly a time of celebration and gratitude for the hard work done, but it was also a time of quiet sadness and pain. Most of all, it was a time to express our indescribable gratitude to Mrs. Gil Ja Kim(김길자) for her 20 years of beautiful dedication to sharing the beautiful house with adoptees visiting their home country. We expressed our thanks to donors and volunteers too. Unexpectedly, the Adoption Alliance(입양연대회의) brought a plaque of appreciation, which added to the gratitude and joy of the day.

##### 2) Overseas Adoptees' Art Exhibition in Commemoration of 20 Years of KoRoot

KoRoot was a home for overseas adoptees. To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we asked adoptee artist Kimura Byol to curate an exhibition of works by overseas adoptee artists, and from July 7 to 31, we exhibited paintings, installation arts, and



일부터 31일까지 “해외입양 70년, 뿌리의집 20년”이라는 주제로 스무분의 해외입양인 예술인들의 회화, 설치미술, 시 작품들을 전시했다. 겸하여 뿌리의집 20년의 연혁과 사진들도 전시했다. 모국에서 살고 있거나 방문한 입양인들, 해외입양의제에 관심을 지닌 분들이 간간히 방문해서, 작품들의 의미를 새겼다. 작품들은 ‘빛나는 입양’이라는 통념적 이미지를 뒤집어 엮어 버릴 뿐 아니라, 입양인들의 생의 여정에 담긴 존재성의 실상과 속살들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었다.



poems by twenty overseas adoptee artists under the theme “70 Years of Overseas Adoption, 20 Years of KoRoot.” We also exhibited the brief

history banner and photos of the KoRoot for 20 years. Adoptees living in or visiting their home country, as well as those interested in the issue of overseas adoption, visited from time to time, and engraved the meaning of the works. The artworks not only overturn the conventional image of ‘glowing adoption,’ but also vividly reveal the realities and intricacies of the existence embedded in the life journeys of adoptees.

### 3) 뿌리의집 이사

6월부터 부지런히 이사를 준비했다. 20년 동안 사용해 온 가구들과 집기들을 필요한 기관과 사람들에게 나누고, 여러 날에 걸쳐 청소를 했다. 시



청운동 뿌리의집 이사 중

몬과 안드레아를 비롯한 몇몇 입양인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했고, 마침내 깨끗이 정리된 빈 집을 김길자 이사장 가족의 품에 돌려 드렸다. 8월 1일, 책들과 자료집을 비롯한 필수품 몇 가지를 챙겨서 부암동에 조그마한 새 사무실을 열었다. 게스트하우스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뿌리의집! 숙박을 빼 나머지 모든 일들\_해외입양인들의 모국 방문에 대한 상담과 조력, 가족 찾기 지원, 명절 잔치, 권익 옹호, 연구와 출판, 국제 사업 등\_을 계속해갈 것이다. 언젠가 환대의 집을 다시 여는 꿈을 안고!

### 3) Moving Out of KoRoot to Buam-Dong



부암동 사무실 내부

Since June, we’ve been diligently preparing for the move. Twenty years of furniture and gadgets were distributed to organizations and people who needed them, and many days of cleaning

took place. Simone, Andrea, and a few other adoptees toiled away, and when we finally had a clean, organized, and empty house, we handed it over to Kim Gil Ja’s family. On August 1, we packed up a few essentials, including books and resources, and opened a small new office in Buam-dong. The KoRoot will continue to do all the things it does, except for lodging: counseling and supporting overseas adoptees’ visits to their home country, helping them find their families, hosting holiday feasts, advocacy, research and publication, and international work. With the dream of one day reopening the guesthouse again!

## II. 쉼터 사업

### 1) 숙박 사업

1월부터 6월 말까지 머무른 게스트의 숫자는 49명,

## II. Shelter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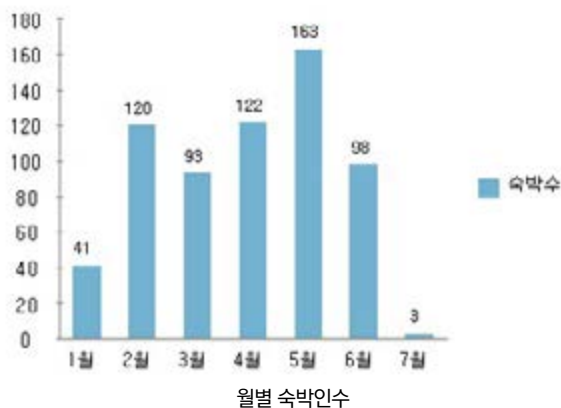
### 1) Accommodation business

From January to the end of June, we hosted 49 guests for a total of



숙박일수는 640박이었습니다. 6월 말로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공지를 통해 알게 된 분들이 특별한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머물기도 했고, 그냥 모국방문과 가족 찾기를 위해서 머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40 accommodation nights. Some of our guests stayed to create special memories, while others visited their home country to search for or visit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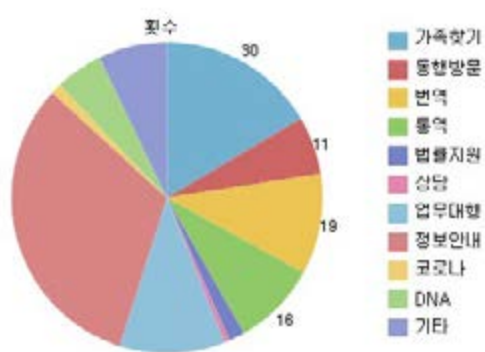


## 2) 모국생활지원

게스트하우스 운영 중인 때는 물론 7월 말로 운영을 종결한 후에도 모국생활지원 사업은 지속되었습니다. 70명의 입양인에게 182회의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내용은 가족 찾기, 동행방문, 번역, 통역, 법률 지원, 상담, 업무대행, 정보안내, 코비드-19, DNA 검사지원, 기타 등등이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가별 횟수와 내용별 횟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비록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닫았지만, 입양인들의 모국생활 관련 지원 사업은 계속해갈 것입니다. 이 일은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실상 입양인들에게 매우 긴요한 조력 사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표4를 보면 게스트가 아니어도 이와 같은 조력에 대한 욕

## 2) Supporting adopted people in motherland

The program continued both while the guesthouse was open and after it closed at the end of July. We provided 182 sessions of assistance to 70 adoptees, including family reunions, accompanied visits, translation, interpretation, legal assistance, counseling, business representation, information, COVID-19 support, DNA testing assistance, and more. The table below shows the number of cases by type of service and by country. Although the guesthouse is closed, we will continue to provide support to adoptees in their motherland, which, based on our experience over the past 20 years, we believe is a critical need for adoptees.



조력 사업의 내용 분포도



국가별 분포도



구가 많은 입양인들에게 긴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III.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1) 2023 설날 잔치

1월 21일, 설날 잔치. 우리는 뿌리의집이 7월이면 문들 닫는다는 것을 알고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청운동 뿌리의집에서 열리는 명절 잔치도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기에,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설이란 우리에게 언제나 새 시간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정과 연대의 삶을 살아갈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1) 2023 Lunar New Year Celebration

On January 21, we gathered together, aware that KoRoot would close its doors in July. It was a time of sadness and regret, knowing that the holiday celebration at KoRoot in Cheongundong would no longer be held. However, it was also a time of affirmation, recognizing that the Lunar New Year always marks a new beginning for us, and that we will continue to live a life of friendship and solidarity.

#### 2) 2023 추석 잔치

20년이 흐른 후, 지난 9월 30일, 처음으로 낯선 장소를 빌려 추석 잔치를 열었다. 경복궁 동십자각 부근에 있는 더룸 탁트인 4층에서. 뿌리의집 이 사 알렌 메이저와 직원 김창선 팀장, 그리고 몇몇 자원활동가들의 수고 덕분에, 청운동게스트하우스 가든에서 열려왔던 추석잔치의 분위기에 비견할 바는 아니었어도, 나름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2) 2023 Chuseok Celebration

Twenty years later, on September 30, we held our first Chuseok feast in an unfamiliar location—on the 4th floor of The Room, a panoramic space near the eastern cross of Gyeongbokgung Palace. Thanks to the hard work of one of KoRoot's directors, Allen Major, along with his staff, Changsun Kim, and a few volunteers, we were able to have a precious and beautiful time, even if it couldn't match the atmosphere of the Chuseok celebration held at the Cheongundong Guesthouse Garden.

### III. 권리옹호

#### 1)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 입법 활동\_2023년 6월 국회 통과

뿌리의집이 해외입양인들의 권리 옹호를 위해 일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입양연대회의'의 회원단체로 참여하여, 큰 단위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결실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입양연대회의가 중심이 되어서 김성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입양특례법 전부

### III. Advocacy for Rights

#### 1) Legislative Efforts for the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Adoption Special Act –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3

One way KoRoot advocates for the rights of overseas adoptees is by participating as a member organization of the Adoption Solidarity Association (입양연대회의), a large-scale movement that achieves tangible results. Through joint efforts between 2022 and 2023, led by the Adoption Solidarity Association and the office of Representative Kim Sung-joo, the entire Adoption





개정안이 지난 2023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것입니다. 이는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제 입양에 관한 모든 중요 절차들이 국가의 공공적 책무로 규정되었고, 그런 점에서 입양 절차 하나 하나에서 아동 인권 실현의 보루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연대회의와 김성주의원실의 치열한 노력에 감사하며, 마침내 정부도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편 이 법 개정작업의 촛불은 2011년 이후 입양의 여정에 올랐다가 주검에 내몰린 2014년 현수, 2015년 은비, 2019년 정인의 죽음이 밝혔습니다.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들의 죽음에 빚지고서야 겨우 법을 바꿀 수 있었음에, 한 편으로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의 옷깃을 여며야 한다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Special Act was amended and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3. This amendment extends the 2011 changes to the Adoption Special Act, now stipulating that all crucial adoption procedures are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reby ensuring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each adoption process. We appreciate the relentless efforts of the Adoption Solidarity Association and Representative Kim Sung-joo’s office, and we are

pleased that the government has finally reached an agreement on this matter. However, we must also acknowledge that the catalyst for this law amendment was the tragic deaths of Hyun-soo in 2014, Eun-bi in 2015, and Jung-in in 2019—individuals who were on adoption journeys since 2011 and whose lives were tragically cut short. As members of society, we owe it to their memory to enact these changes in the law, but we also carry the weight of regret and shame for not doing so sooner.

## 2) “출생통보제” 입법 활동\_2023년 6월 국회 통과

뿌리의집은 2010년, 출생신고제가 결정적 문제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외입양이든 국내입양이든 입양의 경로에 오르는 아동 대부분이 자신의 출생의 진실이 명기된 국가의 공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근원을 알 권리(Right to Origin)’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뿌리의집은 연대단체들과 함께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UBR)”를 조직하고 이 일을 위해 10여 년 동안 활동을 펼쳤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한국의 국회를 향한 가열찬 로비를 벌였고, 지난 2023년 6월 마침내, “출생통보제”의 입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년 동안의 로비와 입법 준비 활동의 열매이긴 하지만, 2023년 5월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약 2300여 명의 아동이 출생미등록 사실이 확인된 데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아동들 중 상당수의 아동들이 방치, 죽음, 살해,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세계 최



## 2) Legislative Advocacy for “Birth Registration” –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3

In 2010, KoRoot identified the birth registration system as one of its most crucial and critical issues. We discovered that most children in the adoption process, whether international or domestic, did not have a national registry documenting the truth of their birth, undermining their ‘Right to Origin.’ To address this, we established the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Network’ (UBR) with allies and worked on this issue for over a decade. Our persistent efforts, including lobbying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culminated in success in June 2023 with the enactment of a legal system requiring hospitals to notify the government of a child’s birth.

This achievement was the result of ten years of lobbying and legislative preparation, but it was particularly catalyzed by a May 2023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Audit Office, which found

지의 출생률을 걱정하기 전에, 이 아동들의 인권을 “보편적출생등록제”의 틀 안에서 지켜내지 못한 일에 대해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nearly 2,300 children whose births had not been registered. Many of these children had been neglected, killed, murdered, or abused. Before South Korean society focuses on its low birth rate, it must confront the pain and shame of failing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se children through a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system.

## IV. 연구 사업

### 1)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기초 연구보고서 발간 기념 포럼 개최

뿌리의집은 지난 2022년 11월, ‘해외 입양인과 친생가족 재회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총 171명의 해외입양인 설문조사와 10인의 친생가족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분석한 본 연구 작업은 ‘재회’를 단독 주제로 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회연구 보고서는 통계 자료 및 심층 답변을 통해 가족찾기를 시도했던 입양인과 친생가족 당사자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들을 제시합니다. 연구보고서는 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정보 접근권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서 입양인들과 친생가족들이 가족 재회의 과정에서 입양기관들과 정부의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이나 비인격적인 응대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공론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17일에는 서울시 시민청에서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에 관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본 연구의 책임 연구자인 김호수 박사님을 모시고 다른 연구자들, 관련 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했고, 모국을 방문 중인 많은 입양인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정부의 담당 부서인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들도 와서 토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IV. Research Projects

### 1) Forum to Commemorate the Publication of the Basic Research Report on Reunions of Overseas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In November 2022, KoRoot published a research report titled “Basic Research on the Reunion of Overseas Adoptees and Biological Families.” This research, significant as the first study focused solely on the topic of “reunion,” involved a survey of 171 overseas adopte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0 biological family members. The reunion research report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from the perspectives of

adoptees and biological families who have attempted to reunite, through statistical data and in-depth responses. The report highlights that the legal rights to access information for adoptees and biological families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It also shows that adoptees and biological families often encounter a lack of professionalism or impersonal responses from adoption agencies and government officials during the reunion process.

To discuss this research publicly, a forum was held on July 17, 2023, at the Seoul Citizens Hall. Dr. Ho-Soo Kim, the lead researcher, along with other researchers and policy officials, was invited to the forum. Many adoptees visiting their motherland attended the event, engaging in passionate discussions. Officials from the National Child Rights Center(NCRC), a semi-government organization, also attended and listened to the discussions.





## V. 국제 활동

### 1) 스웨덴해외입양문제조사단 방문 및 협의회

2023년 3월 20일, 스웨덴해외입양 문제조사단 단장 Anna Singer 박사(웁살라 대학교 아동권리학 교수) 외 2인이 청운동 뿌리의집을 방문하고, 노혜련교수, 신필식 박사, 김도현 대표와 스웨덴과 한국 간의 불법 입양에 관련된 조사의 일환으로 대화를 나누다.



## V. International Activities

### 1) Swedish Commission of Inquiry on Intercountry Adoptions visited KoRoot

On March 20, 2023, Dr. Anna Singer (Professor of Child Rights, Uppsala University), the chairwoman of Swedish Commission of Inquiry on Intercountry Adoptions, and two other members visited KoRoot and consulted each other with Prof. Hye-Ryeon Noh, Dr. Pilsik Shin, and Do-Hyun Kim as part of an investigation into illegal adoptions between Sweden and South Korea.

### 2) 스웨덴 국회의원 Lorena Delgado Varas박사 방문

2023년 9월 2일, 스웨덴 국회의원 Lorena D. Varas 박사가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해외입양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뿌리의집을 방문했다. Lorena 박사는 피노체트 독재 국가 시절 칠레를 떠나 스웨덴에 정착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칠레의 불법 입양 문제를 스웨덴 국회에 제기한 바 있는데, 한국 해외입양에 대해서도 심층적 이해를 하고자, 뿌리의집을 방문하고 김도현 대표와 김창선 팀장과 대화를 나누다.



### 2) Visiting Dr. Lorena Delgado Varas(a member of Swedish Parliament)

On September 2, 2023, Dr. Lorena D. Varas, a member of the Swedish Parliament, visited KoRoot to review the issue of intercountry adoption between Korea and Sweden. As a member of a family that fled Chile during the Pinochet dictatorship and settled in Sweden, Dr. Lorena raised the issue of illegal adoptions in Chile to the Swedish Parliament. She also wante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Korean intercountry adoptions, so she visited KoRoot and shared perspectives with Do Hyun Kim and Changsun Kim.

### 3) Asian Adoptees of Canada Dinner Talk(9월 15일, 캐나다 토론토\_Richmond Hill)

캐나다로 휴가를 떠났던 김도현 대표가 토론토에서 지내는 동안 Asian Adoptees of Canada의 회원 10여 분들과 만나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김대표가 주로 지난 20년 동안 귀환 입양인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와 공헌을 해왔는지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 3) Dinner Talk with Asian Adoptees of Canada

On September 15 in Richmond Hill, Toronto, Canada, Do Hyun Kim met with over a dozen members of Asian Adoptees of Canada during his trip to Toronto. He discussed how returning adoptees to Korea have contributed to significant changes and achievements, including the enactment of a special adoption law, shifting perceptions regarding unwed mothers, and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related to Korean intercountry adoption.

### 4) 스웨덴입양위원회(MFoF) 방문 및 대화(9월 17일, 부암동 뿌리의집 사무국)

### 4) The Swedish Adoption Council (MFoF) visited KoRoot

On September 17, at KoRoot's new office in Buam-dong, a



스웨덴입양위원회 위원들이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입양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방문. 노혜련 이사장과 김창선 팀장이 대화의 파트너로서 한 스웨덴 간의 입양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다.



from Korea.

meeting took place between Prof. Hellen Noh, the chairwoman of the KoRoot Board, and members of the Swedish Adoption Council. The Swedish Council expressed their interest in examining and clarifying the appropriateness and potential for illegal involvement of adoption

## VI. 언론 및 홍보

### 1) 언론 인터뷰

르몽드(니콜라스 로카), 스브스(SBS), 한국일보, DR Nyheder(덴마크), CTS, GoodTV,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한겨레, MBN, 기독교신문, ARTE방송, South China Morning Post, 프레시안, 동아일보, 뉴스타파, CBC(Canada), 싱가포르의 INITIUM Media 등

### 2) 다큐멘터리 인터뷰

ARTE, K-number, South China Morning Post

### 3) 강연 및 설교

한국기독교협의회디아코니아대학원 특강(2023년 5월 4일, zoom강의)/ 임정진작가 북토크 패널리스트(2023년 6월 29일, 누하동)/ CTS방송 직원 경건회 설교(1월 25일)/ 익수스교회 주일예배(2월 6일)/ 승덕교회 주일예배 설교(5월 7일)/ 캘거리벤엘장로교회 수요일예배 설교(10월 26일)/ 목요신학과신앙사랑방 해외입양 강연(2023년 11월 23일, 비대면)/ 파주브릿지교회 주일예배 설교(11월 25일)/산본교회 수요일예배 설교(12월 20일)

## VI. Press and Public Relations

### 1) Press interviews

Le Monde (Nicolas Roca), SBS, Hankook Ilbo, DR Nyheder (Denmark), CTS, GoodTV, Yonhap News, Oh My News, Hankyoreh, MBN, Christian Newspaper, ARTE, South China Morning Post, Pressian, Dong-A Ilbo, Newstapa, CBC (Canada), INITIUM Media in Singapore, etc.

### 2) Documentary interviews

ARTE, K-number, South China Morning Post

### 3) Lectures and sermons

- Lecture at the Graduate School Diakonia of Korea National Christian Council (KNCC) (May 4, 2023, via Zoom)
- Book Talk Panelist (June 29, 2023, Nuhadong)
- Preaching at CTS Broadcasting Staff worship (January 25)
- Preaching at Ixus Church Sunday Service (February 6)
- Preaching at Sungdeok Church Sunday Service (May 7)
- Preaching at Calgary Bethel Presbyterian Church Wednesday Service (October 26)
- Lecture on Adoption at a Theologians Group Faith and Love (November 23, 2023, via Zoom)
- Preaching at Paju Bridge Church Sunday Service (November 25)
- Preaching at Sanborn Church Wednesday Service (December 20)

[The application of preaching messages has always been connected to the rights of children and the practice of just adoption.]

## VII. 모금

### 1) 유명애 작가 기증 전시회

2023년 2023년 1월 4일(수요일) ~ 1월 10일(화요일), 강남 압구정역 부근의 로이갤러리에서 열었다. 유명애 화가께서 작품 30점을 기부해주셨다. 로이갤러리는 갤러리를 7일 동안 무상으로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기부해주셨다. 그림판매 및 후원금 총액: 29,650,000원이었다.



유명애 화가(오른쪽)와  
김서경 큐레이터

## VII. Fundraising

### 1) Donation Exhibition by the artist Yoo Myeongae



전시회 광경

Donation Exhibition by the artist Yoo Myeongae was held from January 4th (Wednesday) to January 10th (Tuesday), 2023, near Apgujeong Station in Gangnam at the Roy Gallery. Artist Yoo Myeongae donated 30 pieces of her watercolor paintings. Roy Gallery generously

provided the gallery space free of charge for a 7-day exhibition. The total amount from art sales and donations was 29,650,000 Korean Won.

### 2) 후원인 간담회

2023년 9월 5일, 달개비에서 윤장순 여사를 모시고 후원인 간담회로 모였다. 달개비의 함순효 이사가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주셨고, 이지운 이사의 기획으로 입양인 영화감독의 다큐멘터리 “Forget Me Not” 상영회를 겸한 자리였다. 이 날 후원인의 한 분이 적십자 바자의 매대 1개(300만원)를 기부해주시기로 하고, 적십자 바자에 뿌리의집이 참가하기로 했다.

### 2) Planning Meeting for Fundraisers

On September 5, 2023, we gathered at Dahlgaby, a conference center with dining facilities, for a fundraiser meeting with Mrs. Jang Soon Yoon (윤장순). Mrs. Ham Soon-hyo (함순효), President of Dahlgaby and one of the directors of the KoRoot board, generously provided the venue and food. The meeting included a screening of the documentary “Forget Me Not” by an adoptee filmmaker Sunhee Engelstoft, organized by Lee Ji-yoon, one of directors of KoRoot board. On this day, one of the sponsors decided to donate one booth (worth 3 million won) for the Red Cross Bazaar, and KoRoot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 Cross Bazaar.

### 3) 적십자 바자

2023년 10월 31일 코엑스 전시관에서 적십자 바자가 열렸고, 뿌리의집도 참가를 했다. 이지운 이사와 함순효 이사가 기획 및 진행을 했고, 지축자원봉사자팀도 하루 수고를 보냈다. 남은 물품은 지축 자원봉사팀 공정에님이 가져가서 동네주민들과 지인들에게 추가 판매했고, 총 물품 판매 및 후원금 총액은 6,677,200원이었다



### 3) Red Cross Bazaar

On October 31, 2023, a Red Cross Bazaar was held at the COEX Exhibition Center, and KoRoot participated. Director Lee Ji-yoon and Director Ham Sun-hyo planned and organized the bazaar, with assistance from the Jichuk (지축) volunteer team. Mrs. Kong Jung Ae(공정애), Pastor Kim's wife, a member of the Jichuk Volunteer Team, took the leftover items and sold them to local residents and friends. The total amount raised from goods and donations was KRW 6,677,200

## 재정보고(2022년~2023년도)

### 2022년도 감사보고서

본인은 헌법 제66조 및 정관 제7장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뿌리의 집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공익법인의 계기준에 준하여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음 -

2023년 2월 10일

사단법인 뿌리의 집  
감 사 감 동 식 (인)

사단법인 뿌리의 집 이사장 귀하

### 2023년도 감사보고서

본인은 헌법 제66조 및 정관 제7장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뿌리의 집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 정확하였으며, 공익법인의 계기준에 준하여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음 -

2024년 2월 14일

사단법인 뿌리의 집  
감 사 감 동 식 (인)

사단법인 뿌리의 집 이사장 귀하

### 재무상태표

제 14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3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과목	제 14기 (당기)		제 13기 (전기)	
	금	액	금	액
<b>I. 총 자산</b>		<b>20,894,988</b>		<b>167,045,731</b>
(1) <b>달라 자산</b>		<b>20,894,988</b>		<b>167,045,731</b>
[0103] 무동태금		21,794,488		70,088,901
[0120] 비수금		110,100		15,056,000
[0131] 선금				1,006,830
(2) <b>재고 자산</b>				
포, 비유동 자산		60,000,100		1,152,520
(1) <b>투자 자산</b>				<b>664,147</b>
[0194] 장기보통채				654,147
(2) <b>유형 자산</b>		200		<b>606,380</b>
[0212] 장기비품	6,094,700		6,095,700	
[0213] 감가상각누계액	6,094,600	300	1,540,140	896,340
(3) <b>계좌보통자산</b>		<b>60,000,000</b>		
[0232] 당좌보통금		60,000,000		
<b>자 산 총 계</b>		<b>83,895,888</b>		<b>168,198,274</b>
<b>II. 총 동부채</b>		<b>1,318,460</b>		<b>1,058,980</b>
[0253] 미지급금		574,420		
[0264] 배수금		540,240		1,038,580
[0269] 선금		117,500		
<b>부 채 총 계</b>		<b>1,318,460</b>		<b>1,058,980</b>
<b>III. 자본금</b>				
포, 자본잉여금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b>82,576,428</b>		<b>167,139,264</b>
(당기) 24,502,666				
(전기) -50,486,121				
<b>자 본 총 계</b>		<b>82,576,428</b>		<b>167,139,264</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83,895,888</b>		<b>168,198,274</b>

### 손익계산서

제 14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3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단법인 뿌리의 집

(단위 : 원)

과목	제 14기 (당기)		제 13기 (전기)	
	금	액	금	액
<b>I. 매출액</b>		<b>181,052,394</b>		<b>243,369,840</b>
[0403] (배출할인)		-6,119,600		
[0405] 후원금		158,350,385		204,318,782
[0421] 사업보조금수입		13,780,000		10,800,000
[0423] 수익비		13,696,416		25,191,632
[0426] 도서매출-출판		1,985,193		3,259,434
<b>II. 매출원가</b>				
<b>III. 매출총이익</b>		<b>181,052,394</b>		<b>243,369,840</b>
<b>IV. 판매비와관리비</b>		<b>205,904,126</b>		<b>192,965,438</b>
[0602] 직원급여		90,707,510		
[0603] 상급급여		4,735,603		
[0604] 초과근로수당		1,207,204		
[0606] 퇴직급여		6,467,390		9,138,162
[0608] 퇴직금		6,780,633		
[0609] 사회보험료		8,217,290		9,431,066
[0611] 복리후생비		5,654,400		1,394,260
[0612] 예비고충비		145,500		349,240
[0614] 통신비		2,826,760		2,751,300
[0615] 수도광열비		6,933,170		7,126,960
[0617] 세금과공과		198,750		199,560
[0619] 임차료		8,050,000		
[0620] 수선유지비		8,133,180		388,150
[0624] 운반비		50,000		689,540
[0626] 도서인쇄비		473,000		6,896,100
[0627] 회세비		351,000		1,067,746
[0630] 소모품비		1,264,420		2,711,390
[0631] 지급수수료		17,349,853		9,656,975
[0633] 업무추진비		2,073,546		261,000
[0660] 판매지원금		1,167,500		1,435,570
[0670] 영사비		30,782,148		4,567,600
[0688] 비-급여		2,349,970		4,469,200
[0695] 잡금				9,505,780
[0616] 감가상각비				816,380
[0621] 보험료				204,442
[0677] 출판제작비				50,000
<b>V. 영업손실</b>		<b>24,251,722</b>		<b>-50,404,420</b>
<b>VI. 영업외수익</b>		<b>89,856</b>		<b>83,701</b>
[0901] 이자수익		59,056		51,201
[0902] 임대수익		30,000		30,500
<b>VII. 영업외비용</b>		<b>400,000</b>		
[0903] 기부금		400,000		
<b>VIII. 법인세차감손실</b>		<b>24,562,666</b>		<b>-50,486,121</b>
<b>IX. 법인세비용</b>				
<b>X. 당기순손실</b>		<b>24,562,666</b>		<b>-50,486,121</b>



## 부리의집에 후원해 주신 분들

개인 후원자 | Personal Sponsorship ※ 몇몇 분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요청하여 XXX으로 표시했습니다. 후원인 존함의 비식별화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개인 후원 | Personal Sponsorship

Stoker Kim, 강소부, 강순희, 강이레, 강정은, 강태리, 경선숙, 고우현, 고혜연, 구본현, 권미향, 권순건, 권위영, 권재문, 권혜윤, 김경옥, 김길자, 김도현, 김동제, 김두연, 김명옥, 김미나, 김미순, 김민석, 김민승, 김상미, 김상수, 김상훈, 김수정, 김순자, 김순희, 김승민, 김신애, 김신정, 김양수, 김연숙, 김영규, 김영무, 김영아, 김영인, 김영자, 김영혜, 김영호, 김원우, 김유경, 김유경, 김은영, 김은혜, 김이경, 김인자, 김정성, 김정숙, 김정옥, 김종호, 김주호, 김지혜, 김진, 김진, 김진석, 김진영, 김진오, 김진희, 김찬, 김태윤, 김태형, 김현숙, 김현정, 김혜경, 김혜원, 김효미, 김효민, 김희숙, 김희숙, 나윤도, 남수정, 노경숙, 노정화, 노현숙, 노혜련, 노희정, 도미니크 로바크, 도민정, 류정희, 류지원, 류태우, 문형신, XXX, 민경원, 민현식, 박경서, 박경준, 박동진, 박병옥, 박세경, 박승옥, 박연미, 박윤분, 박윤영, 박인우, 박재란, 박재영, 박재환, XXX, 박지호, 박진규, 박찬업, 박창우, 박하원, 박행진, 반철진, 방옥희, 배한성, 백경학, 백영숙, 백은옥, 백창기, 서용환, 서일옥, 성명자, 성희숙, 소라미, 손영규, 손정일, 손정임, 손준호, 손현아, 손혜원, 송미자, 송중우, 송주호, 송철의, 신아름, 신윤철, 신필식, 신희택, 심금주, 심영진, 심재옥, 안혜영, 염상빈, 염은미, 염혜경, 오영나, 오작근, 옥화선, 우영자, 우재은, 원영자, 원자선, 유영애, 유문선, 유민상, 유서규, 유은정, 유지영, 유진월, 육동진, 윤경로, 윤경영, 윤선화, 윤장순, 윤재민, 윤택원, 이경미, 이경석, 이경연, 이경희, 이기숙, 이기철, 이덕래, 이동수, 이미경, 이미정, 이미정, 이상규, 이선경, 이선숙, 이설아, 이성실, 이성영, 이세희, 이소정, 이소희, 이수민, 이숙연, 이숙리, 이승찬, 이승희, 이양재, 이연순, 이연희, 이영근, 이영주, 이영희, 이은옥, 이인희, 이재현, 이종희, 이주혜, 이지윤, 이지하, 이지하, 이지혜, 이철우교수, 이현주, 이효범, 이희택, 임수진, 임웅기, 임재환, 임창규, 임희중, 장병인, 장재영, 장장원, 장재성, 전군식, 전연옥, 전유림, 전준한, 정경아, 정경환, 정다원, 정숙희, 정순이, 정연도, 정연숙, 정영자, 정원기, 정일수, 정재은, 정정숙, 정준호, 정지서, 정찬양, 정창숙, 정향진, 정혜원, 조계순, 조남경, 조미정, 조수연, 조영현, 조윤미, 조윤실, 조은숙, 조현산, 조희정, 조효민, 조희숙, 주정호, 주혜주, 채수경, 최도영, 최미영, 최용숙, 최진경, 최형숙, 추동미, 추송미, 추창업, 한병화, 한석준, 한순웅, 한승희, 홍두표, 홍영길, 홍민표, 홍성규, 홍성덕, 홍성애, 홍수미, 홍중순, 황경희, 황미혜, 황선미, 황성영, 황은하, 황필규, 황혜신

### 2022년 기관단체 후원 | Organizational Sponsorship

(주)달개비, (주)대광에스원, (주)레보스톤, (주)베론, (주)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정동점, JCCC, 강남새사람교회, 고려농성(주), 국제소로티미스트 서서울클럽, 법무법인 이평, 산본교회, 새문안교회, 살롱교회, 남가주경기여고, 수동교회57여전도회, 수산교회, 수원은누리비전교회, 신창교회, 익수교회, 조은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헤르만의정원

### 2023년 개인 후원 | Personal Sponsorship

CHO SEUNGMI, DAVIDLGRANHOLMORINSUKJ, Doris Kim(김양수)교수, ERIKSENJES, inger-tone, kumfa수진, kwon si simon hokwerda, Stoker Kim, 강미경, 강순희, 강이레, 강태리, 경선숙, 고예단, 고우현, 고진숙, 구본현, 구자일 매듭회, 구교교회 한영수목사님, 권미향, 권순건, 권위영, 권재문, 권혜윤, 김가람, 김경옥, 김국현, 김길자, 김도현, 김동제, 김동제, 김두연, 김명옥, 김미나, 김미순, 김민석, 김민승, 김상미, 김상수, 김상훈, 김수정, 김순자, 김순희, 김승민, 김신애, 김신정, 김양수, 김연숙, 김영규, 김영무, 김영아, 김영인, 김영자, 김영혜, 김영호, 김원우, 김유경, 김유경, 김은영, 김은혜, 김이경, 김인자, 김정성, 김정숙, 김정옥, 김종호, 김주호, 김진, 김진, 김진석, 김진영, 김진오, 김진희, 김찬, 김태윤, 김태형, 김현숙, 김현정, 김혜경, 김혜원, 김효미, 김효민, 김희숙, 김희숙, 나윤도, 남수정, 노경숙, 노정화, 노현숙, 노혜련, 도민정, 도장숙, 류정희, 마한열, 매듭회, 문호준, 민경원, 민현식, 박경서, 박경준, 박동진, 박병옥, 박세경, 박승옥, 박연미, 박윤분, 박윤영, 박인우, 박재란, 박재영, 박재환, 박지호, 박진규, 박찬업, 박창우, 박행진, 박하원, 박형숙, 반철진, 방옥희, 백경학, 백영숙, 백은옥, 백창기, 산사랑 최양자, 서여정, 서용환, 서일옥, 성명자, 성희숙, 소라미, 손영규, 손정일, 손정임, 손혜원, 송미자, 송유리, 송중우, 송주호, 송철의, 수산교회/박봉근 담임목사, 신윤철, 신진원, 신필식, 심금주, 심재옥, 안혜영, 염은미, 염혜경, 오명숙, 오수원, 오영나, 오작근, 옥화선, 우영자, 우재은, 원영자, 유영애, 유문선, 유민상, 유서규, 유은정, 유은화, 유지영, 유진월, 육동진, 윤경로, 윤경영, 윤미부, 윤택원, 이경미, 이경석, 이경연, 이경은, 이경희, 이덕래, 이미경, 이미정, 이봉숙, 이상규, 이선숙, 이성실사모, 이성영, 이세희, 이소정, 이소희, 이수민, 이숙연, 이순자, 이승찬, 이승희, 이신안, 이연길, 이연순, 이연희, 이영근, 이영주, 이영희, 이은옥, 이인희, 이재현, 이재현대표, 이종희, 이주혜, 이지윤, 이지하, 이지하, 이지혜, 이진혜, 이철우, 이태인, 이현남, 이현주, 이현표, 이효범, 이희택, 익수교회(오종일목사), 임상희, 임웅기, 임재환, 임정진, 임현규, 임혜선, 임희중, 장병인, 장유정, 장장원, 장재성, 장정자, 장홍선, 전군식, 전연옥, 전유림, 전준한, 정경아, 정경환, 정다원, 정문용, 정성철, 정숙희, 정순이, 정연도, 정연숙, 정영자, 정원기, 정일수, 정재은, 정정숙, 정지서, 정찬양, 정창숙, 정향진, 정혜원, 조계순, 조남경, 조영현, 조윤미, 조윤실, 조현산, 조희정, 조효민, 조희숙, 주정호, 주혜주, 지은희, 진양규, 채수경, 최도영, 최진경, 최형숙, 추동미, 추송미, 추창업, 한석준, 한승희, 홍두표, 홍민표, 홍성규, 홍성덕, 홍성애, 홍수미, 홍중순, 황경희, 황선미, 황성영, 황은하, 황준혁, 황필규, 황혜신

### 2023년 기관단체 후원 | Organizational Sponsorship

(주)달개비, (주)대광에스원, (주)레보스톤, (주)커넥트비아이, (주)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정동점, BENZAI10 UG (H, Euromonitor, 강남새사람교회, 고려농성(주), 구교교회, 국제소로티미스트 서서울클럽, 대한예수교장로, 맥스구조건축사무소, 사단법인은을, 산본교회, 산사랑, 새문안교회, 서초호안교회, 수동교회57여전도회, 수산교회, 신창교회, 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유로모니터, 익수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미혼모협회

## 후원안내

부리의집은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애쓰는 해외입양인들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자님의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지정대상단체,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

- CMS로 후원 : 홈페이지에서신청, 전화로신청가능
- CMS란? Cash Management Service,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직접회비를 출금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 출금일 매월 24일(미출금시 30일)
- 카드로 후원 : 부리의집 홈페이지 후원 신청 및 직접연락신청(승인일 매월 20일)
- 계좌이체 : 직접이체 또는 직접 자동 이체등록
- 신한은행 : 100-019-570796 예금주 : 사단법인 부리의집
- 국민은행 : 343601-04-006975 예금주 : 사단법인 부리의집

\* 부리의집 홈페이지 후원신청 > www.koroot.org / \* 해외에서 후원신청 DonationFromAbroad  
- Paypal : koroot11@gmail.com / - Myriad USA Fund > https://www.every.org/koroot

[후원문의] 02-3210-2451 admin@koroot.org

